

“5월문제는 대표성 갖는 단체가 해결해 나가야”

유족회 불참·각계 반발 여론 불구 19일 대국민 공동선언식 진행 당사자끼리 직접 소통 방식 필요 시민들 “새롭게 한발 내디려야”

오는 19일 5·18단체와 특전사동지회의 화합을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이 예정되자 광주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했던 3단체 중에 5·18민주유공자유족회(유족회)가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곳곳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고 성토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행사를 기획한 오월단체는 예정대로 선언식을 강행할 방침이다.

15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공법단체 중 유족회 불참은 유감이지만 예고한대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5·18문제는 협조자인 시민단체가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공법3단체 중 하나인 유족회는 전날 “찬반논란이 팽배해 긴급 이사회를 연결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실규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공동선언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 회장은 또한 그간 5·18민주화운동을



황일봉(왼쪽)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이 1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두고 “꾸준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왔지만 5·18문제는 43년간 진일보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 승격, 헌법전문 수록 등 그 무엇이나 이뤄진 것이 없다. 광주 학살의 주범인 노태우나 전두환도 없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정한 사죄’를 이뤄

낼 수 있겠냐”면서 “이제는 당사자끼리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5·18 3단체는 오월단체가 계엄군과의 포용과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예고했다. 지난달 17일

5·18 3단체와 특전사동지회 회장단은 국립서울현충원 합동참배 이후 화해의 행보를 이어가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동선언식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 시민사회가 “진정한 사과 없이

이뤄지는 화해는 거짓”이라고 들고 일어섰다.

오월어머니집은 규탄문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가해자들의 고백과 사과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국가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이 발포명령과 암매장의 진실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의 행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도 3일간 “진상규명과 사과없는 참배와 화해를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연달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황 회장의 행보에 공감을 보이기도 했다.

풍암동에 거주하는 박성진(51)씨는 “지난 수십년간 뭐가 변했다. 이제는 5·18도 달라져야 한다. 가해자들을 포용하고 안아주면서 진실에 접근할 때”라면서 “반발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한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도 “5·18을 바로세운 김영삼 전 대통령도 묘역을 오갔다고 했을 때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단체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묘역 땅을 밟지 못했다. 찬반의견이 갈릴 수는 있으나 예나 지금이나 목소리만 높이며 서로를 비방할 시대는 지났다”면서도 “다만 이번 공동선언식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견수렴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아쉬움은 있다”고 조언했다.

글·사진·김혜민 기자 hyein.kim@jnilbo.com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랜드마크 될까

남구청사서 정식 오픈행사 개최 3D호랑이·미디어 아트 등 다양

광주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지역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볼거리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미디어월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백운광장 미디어월 오픈 행사가 청사 인근 남구 자원봉사센터 앞에서 열렸다. 미디어월은 남구청사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로, 매 시각 포효하며 시간을 알리는 3D 호랑이와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각종 남구 소식 등이 영상으로 송출된다.

이날 행사에서 김병내 남구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했던 것은 1980년대 백운광장의 중흥기와 상권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었다”며 “관내 유일한 상업지역인 백운광장이 침체 이미지를 벗고, 남구 발전의 중심축으로 힘찬 날갯짓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월은 매 시각 정시를 알리는 ‘백

운 호랑이’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차례 등장해 포효하는 영상을 중심 콘텐츠로 한다.

또 칠석동 은행나무의 사계절을 담은 아나모픽 일루전 아트 방식(착시현상을 이용해 입체감을 주는 방식)의 실감 콘텐츠와 양림동·푸른길 등 관내 주요 명소를 담은 미디어 아트 작품도 제공한다. 가족 영상편지로 가슴 속에 묻어둔 애뜻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족 간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통로 역할도 하게 된다.

미디어월은 무려 5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 데다 ‘백운 스트리트 푸드

존’에 이어 남구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어서 기대만큼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앞서 남구는 미디어월의 연간 전기료가 7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7000만원은 매일 20시간씩 최대 전력이 소모되는 흰색으로만 영상을 구현했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한 금액이다. 실제 비용은 2000~5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기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영원한 봄의도시,
베트남의 작은 프랑스마을 '달랏'

2022-2023년
“꽃” 축제도시 무안-달랏 직항

달랏 (직항)

999,000원~

월드투어센터 대표번호 070-3607-1134

www.vietjet.com
[양국정부인가조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항공운항예정시간

무안-달랏 10:00-13:05 / 달랏-무안 01:50-08:30

(백투백3박5일)

달랏 관광 3박 5일

4성급 실속 [준특리] 999,000~

4성급 품격 [특리] 1,099,000~

달랏 골프 - 54H 3박 5일

4성급 실속 [준특리] 1,499,000~

4성급 품격 [특리] 1,599,000~

달랏-트래킹, 무이네, 나트랑 관광 3박 5일

4성급 실속 [준특리] 999,000~

5성급 품격 [특리] 1,099,000~